

# 블랙리스트 사라지자 달라진 세종도서 목록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세종도서 목록에 배제됐던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세월호 관련 등 도서가 올해는 대상 목록에 선정되면서, 세종도서 사업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맞물리면서 '블랙리스트'와 연계된 세종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때(2014~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세종도서 최종 심사 때 지원배제대상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해 총 22권을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당시 배제된 도서를 두고 문체부가 사상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광주 출신 한강의 5월을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와 음악계 '블랙리스트'로 언급되는 윤이상의 음악과 삶을 다룬 '윤이상의 평전'이 배제됐었다.

특히 '소년이 온다'는 당시 진흥원에서 줄을 쳐가며 꼼꼼하게 검열했다는 진술이 나올 만큼 박근혜 정부가 5·18 등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의 사상 검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세종도서 목록에는 과거에는 지원배제 대상에 올랐던 도서들이 포함돼 '블랙리스트'가 사라지면서 세종도서 목록도 큰 폭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 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중학생의 죽음을 소년의 관점에서 다룬 '소년이 온다'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한 소설이다. 한강은 "5·18 당시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한 시민군의 절규가 계속 글을 쓰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상반기 선정 세종도서 주요 목록



## '소년이 온다'·'윤이상 평전'·'거짓말이다' 등 포함 심사위원 추천제·회의록 공개 등 선정 투명성 강화

이번 세종도서 선정에 포함된 도서에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조사사의 이야기를 다룬 김탁환의 소설 '거짓말이다'도 있다. 2015년에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눈 먼 자들의 국가' 등 세월호 관련 참사를 다룬 많은 책들이 쏟아졌지만 한 권도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사상검증'을 당했다. 김탁환의 '거짓말이다'는 참사자들의 이야기를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풀어낸 장편이다. 제3회 요산문학상 수상 작품이기도 한 소설은 "이타주의와 헌신 등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 점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이상 평전'도 선정돼 그의 음악과 생애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독일을 갔을 당시 김정숙 여사가 윤이상(1917~1995)의 묘소를 찾아, 고인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2015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 '문제 도서'로 분류됐던 공지영 작가가 이번에는 수필 '시인의 밥상'이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지리산 행복학교' 이후 다시 찾은 지리산에서 박남준 시인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세월호 관련 책을 펴내 세종도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출판사 정비와 문화동네 도서들이 이번에도 각각 13종, 12종이

**?** 세종도서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금까지 역량있는 작가들과 우수 출판사에 적잖은 동기 부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함했다. 이들 출판사는 펴내는 책이 많은 만큼 선정 상한성인 25종을 다 채웠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각각 6종 선정되는데 그쳤다.

올해는 세종도서 심사 방식이 바뀌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숫자의 3~5배수를 추천받은 뒤 추천을 통해 최종 위원을 선정하는 '풀(pool)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진흥원이 학하나 단체 등의 추천을 토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회의록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검열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1년에 한 번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선정하기로 했다. 신간을 조금 빠르게 도서관에 보급할 뿐 아니라, 올 초 서적도매상 송인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한편 올해 선정된 세종도서 목록은 학술(320), 문학(250), 교양(220) 등 모두 790종이 선정됐다. 학술 분야에는 '대한민국 행복지도', '밀바다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 등이 포함됐고 문학 부분은 '82년생 김지영', '결을 주는 일', '거대한 타본'이, 교양 부분은 '꼭 알고 싶은 정신분석의 모든 것', '나는 왜 내 마음을 모을까' 등이 포함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창작국악단 '도드리' 섬진강변서 공연

8월5일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음악당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곡성의 섬진강변에서 국악 무대를 선보인다. 도드리 전남지부는 오는 8월5일 오후 7시30분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야외음악당에서 '섬진강 아리랑-심곡성(深谷聲)' 주제로 국악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전남지부 (이하 도드리)가 주최하고 전라남도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 곡성군이 후원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과 국악관련악곡 등이 관객을 만난다. 또 대중가요와 국악실내악곡을 비롯한 음악과 율동이 있는 살사댄스, 스윙 댄스, 마셜 댄스 공연 등도 펼쳐진다.

특히 섬진강을 주제로 한 위촉곡 '섬진강 강태공', '심곡성 아리랑', '섬진강 사계 중 심청 별곡' 등이 초연된다. '섬진강 아리랑-심곡성(深谷聲)' 공연은 2017년남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개최되는 공연으로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266-5889. /전문재기자 ej6621@

이들의 모임으로도 읽힌다. 어느 쪽이든 시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설을 쓴 문두근 시인은 "최영숙 시인에게 시를 쓰고 다듬는 창작활동이 자기의 삶에서 멈출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며 "조탁이나 절타차마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성취와 그 기쁨에 떨기도 한다"고 평한다. 한편 최 시인은 "문예운동" 시부문에 등단했으며 순천문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시집 '내 마음의 진주'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심으로 소통하는 삶의 일상

### 최영숙 시집 '파랑새'

삶의 일상에서 느낀 심상을 다양한 시편으로 갈무리한 시집이 나왔다.

순천 문학동인 '시와산문' 회장을 역임한 최영숙 시인이 펴낸 '파랑새' (아세아)에는 소소한 생활에서 건져 올린 시들이 수록돼 있다. 60여 편의 다양한 작품은 넓은 관점에서 소통, 어울림의 의미로 수렴된다. 한편으로 창작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시인의 정갈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여행에 눈 떠 시집 진주 채우기/영혼이 키운, 지식으로 이어져/간절한 꿈 다진 터전 이루어네."

표제시 '파랑새'는 시를 향한 화자의 열정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파랑새는 함께 시를 지지하는



이들의 모임으로도 읽힌다. 어느 쪽이든 시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설을 쓴 문두근 시인은 "최영숙 시인에게 시를 쓰고 다듬는 창작활동이 자기의 삶에서 멈출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며 "조탁이나 절타차마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성취와 그 기쁨에 떨기도 한다"고 평한다. 한편 최 시인은 "문예운동" 시부문에 등단했으며 순천문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시집 '내 마음의 진주'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가 있었기에...' 해곡 최순우 탄생 100주년 추모문집

### 지인·후학 33명 발간

해곡 최순우(1916~1984) 전 국립박물관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가 있었기에-최순우를 그리면서(진인진)'가 발간됐다.

해곡 최순우기념관이 펴낸 추모문집에는 해곡 선생과 인연을 맺은 지인들과 후학 33명이 선생에 대한 추억을 담은 글 35편이 수록돼 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선생에게는 '한국미학의



구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1945년부터는 개성시립박물관에서 박물관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이후 1949년 서울 국립박

전령사' '박물관원의 아버지'와 같은 수사가 따랐다. 최 관장은 1916년 개성에서 출생했다. 1935년 학업을 마친 이후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했으며 1945년부터는 개성시립박물관에서 박물관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이후 1949년 서울 국립박

물관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수인 유물과 유적을 관리하고 알리는데 매진했다.

회화와 도자기, 공예 등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우리 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최초 해외전 시인 '한국국보전' 뿐 아니라 '한국미술 오천년전' 등을 열기도 했다. 또한 간송 전형필 등 수집가들과 교류하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수탈당하고 훼손되는 문화재를 지켜냈다. 책에는 미술사학자이면서 인간적인 해

곡의 면면이 드러나 있다.

1부 '우리 가슴에 영원히'에는 그와 인연을 맺은 9명의 저자들의 글이 담겨 있다. '그의 길을 따라 걸으며'는 해곡과 교류했던 문화계 인사 6명의 글이, '한국미의 선택'은 해곡 선생의 미학에 대한 글이 수록돼 있다.

4부 '따스한 숨결'과 5부 '조용한 아름다움'은 각각 예술계 종사자 6명의 글과 해곡이 거쳐왔던 집에 대한 추억의 글 6편이 담겨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외구 갈비살 20,000원  
외구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외구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